

본지 김광우 자문위원 김세중조각상 수상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작업실에서 작품제작 몰두



김광우 조각상을 수상했다.

본지 자문위원이며 전 동아대 교수 김광우(66·사진) 조각가가 25일 대한민국예술원에서 제21회 김세중조각상을 수상했다.

김 위원은 홍익대 조소과 및 동 대학원을 나왔고 2004년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 및 부산조각프로젝트 전시감독을 지냈다. 2004년 제5회 부산문화대상과 제3회 문신미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 18회가 되는 김세중청년 조각상은 김태근(39), 천성명(36)씨가 공동으로 수상했고, 제10회 한국미술저작상은 김리나(65) 문화재단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받

았다.

김세중조각상은 조각가 고 김세중(1928~1986)을 기리기 위해 김세중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상이다. 고 김세중은 1950년 서울 대학 미술대, 1952년 동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1952~1986년까지 동 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1962년 IAPA(국제조형미술협회)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1962년과 1968년에 국전(國展: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 1973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1983~1986년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을 역임하였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상하였고, 은관문화훈장을 추서받았다.

한편, 이날 수상한 김광우 위원은 동아대학교에서 정년퇴임 후 현재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작업실에서 작품제작에 몰두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69

익헌공(翼憲公) 이문원(李文源) 죽는 마당에 인사는 하고 가야겠다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이문원은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천보(李天輔)의 양자이다. 이천보는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재물을 탐하지 않았는데, 아들 이문원 역시 당대의 청백리로 이름이 높았다.

그가 벼슬을 버리고 퇴계원에 살 때였다. 그는 관서를 여덟 번이나 지냈으나 시골에 초가를 짓고 농사를 지었으며, 도롱이를 쓰고 냇가에 나가 낚시를 하며 소일했다.

어느 날 그가 냇가에 앉아 낚시를 하고 있는데 관복을 입은 도사(都事)가 개울 건너편에 도착하였다. 이문원이 고개를 들어 보니 도사가 그를 부르고 있었다.

“이보게 늙은이! 내가 급한 일이 있어 개울을 건너야 하는데 신발을 벗기야 곤란하니 나 좀 업어주게.”

이문원은 바짓가랑이를 걷고 개울을 건너 도사가 있는 곳으로 향하였다. 그러고는 말없이 도사를 주신 수료생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그는 임금을 밟고 돌아가는 길에 매제인 판서 서유방(徐有芳)을 찾아가 말했다.

“그대는 아침을 일삼는 자이다. 하지만 그대는 나의 매제이니 죽는 마당에 잠시 만나 하직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대는 앞으로 남에게 잘 보이려는 태도를 고쳐야 할 것이다.”

매제에게 마지막 충고를 남기고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문원은 세상을 떠났다.

이문원(李文源)
1740년(영조 16) ~ 1794년(정조 18)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는 사질(士質)이다. 1763년 진사시에 합격하여 음보로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1771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교리·승지를 지냈으며, 1779년 대사간을 거쳐 이듬해 통례부사·경상감사로 승진되었다. 1781년 대사간·대사성을 지내고, 1784년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그후 공조판서, 여주목사, 이조판서, 형조판서, 병조판서, 예조판서 등 여덟 차례나 판서를 지냈다. 시호는 익헌(翼憲)이다.

“대감께서 집에 계신가?”
그때 웬 늙은이 하나가 낚싯대를 멘 채 뜰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무슨 일로 나를 찾는지?”
도사가 뒤를 돌아보니 아까 개울가에서 만난 늙은이었다. 순간 도사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다.

“대감, 이놈을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이문원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오히려 술상을 차려 후히 대접한 후 돌려보냈다.

말년에 그는 임금의 수어사(守禦使)로 있었는데, 죽음이 임박하자 마지막으로 임금을 뵈고 하직인사를 올렸다.

“신은 곧 죽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아침하는 신하를 멀리 하여 하인에게 물었다.

글쓰기 수업 28명 수료의 영광

포천文協 제4기 포천문예대학 수료식



(사)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이재욱)가 주최하고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이 후원해 마련한 제4기 포천문예대학 수료식은 6월28일 오후7시 대진대학교 국제학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수료식은 지난 4월5일부터 6월28일까지 12주 강의중 8강의 이상을 수료한 28명에게 수료증이 교부됐다.

이날 수료증을 받은 65세 백발의 박연지 할머니는 “학창시절 문학소녀로 지냈던 꿈을 살리고 노후를 스러지는게 아니라 찬란한 석양에 비추어 장식하고 싶은 마음에서 포

천문예대학 강좌를 수강하게 되었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인간이 되어 깨치고 난 다음에야 제대로 된 글이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강사로 나선 대진대 문예창작학과 김성렬 교수는 “대진대학교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수강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문학에 관한 의문으로 연락주시던 성실성의 답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 수료증을 받으시는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다가오는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재욱 지부장은 “2주동안의 좋은 강의를 받은 수료생 여러분들의 많은 활동과 문예대학을 통하여 포천에서 문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양주, 연천 등 먼 거리에서 주신 수료생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1929년 경제 대공황과 브로드웨이 뮤지컬

최초의 북 뮤지컬과 최초의 유성영화가 탄생한 1927년은 세계의 뮤지컬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기 시작한 원년으로 볼 수 있다. 초기의 뮤지컬 코미디와 무성영화는 보드빌(Vaudeville) 형식을 지닌 가벼운 뮤지컬로 이루어졌는데 1927년을 기점으로 탄탄한 줄거리를 지닌 뮤지컬로 거듭나게 되었다. 물론 관객의 취향에 따라 위의 두 가지 형식이 공존했는데 뮤지컬의 대세는 역시 북 뮤지컬에 있었다. 그렇지만 1927년 이후 할리우드가 뮤지컬의 황금기를 만들어 가는 동안 브로드웨이는 북 뮤지컬이 일반화되기 전에 경제공황으로 인해 커다란 위기를 맞는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승전국 미국은 전시 이득으로 얻은 막대한 자본으로 인해 경제호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더욱이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며 일당정부와 동의어로 지칭되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의 등장은 무술러니와 히틀러를 대중의 영웅으로 만들면서 새로운 경제체계를 이루며 1930년대 후반에 또 다른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미 과도한 투기가 주식시장의 문제로 대두되었고, 자동차와 건축, 기타 내구재에도 과잉투기가 초래되고 있었다. 또한 생산과잉으로 비롯된 세계 농업은 급기야 혼란에 빠지며 불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기본적인 실업률도 미국

경제공황의 원인으로 도사리고 있었다. 결국 주식시세 대폭락(Stock Market Crash of 1929)을 계기로 심각한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경기는 계속 후퇴를 거듭해, 1932년까지 미국 노동자의 30퍼센트 가까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불황의 영향은 즉시 유럽 경제에도 과급되어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채무국인 독일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에서도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더욱이 나라마다 외국상품 수입에 반대하는 정책을 세움에 따라 블록 경제(Bloc economy)를 초래했다. 블록경제를 가져온 경제공황은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쳐 극단적인 이념을 내세운 정치세력이 확산되고 일당 자유민주주의는 점차 대중의 호응을 잃어가게 되었다. 더욱이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며 일당정부와 동의어로 지칭되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의 등장은 무술러니와 히틀러를 대중의 영웅으로 만들면서 새로운 경제체계를 이루며 1930년대 후반에 또 다른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미 과도한 투기가 주식시장의 문제로 대두되었고, 자동차와 건축, 기타 내구재에도 과잉투기가 초래되고 있었다. 또한 생산과잉으로 비롯된 세계 농업은 급기야 혼란에 빠지며 불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기본적인 실업률도 미국

할 기미도 보이지 못한 채 만상적인 불황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미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역시 문화예술분야, 특히 브로드웨이였다.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는 실업자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현실 속에서 비싼 티켓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연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조차 티켓구입에 인색해졌고 투자자조차 없는 극장가는 한산하기만 했다. 반면에 할리우드는 브로드웨이보다 경제공황에 타격을 덜 받은 듯 보였다. 1927년 앨 쥘슨이 <재즈 싱어>로 할리우드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수많은 브로드웨이의 작곡가 및 배우들이 영화사로 영입되었다. 또한 1930년대 지속적인 경제공황에 흔들리지 않았던 뮤지컬 영화와 갱스터영화의 성장은 당시 더 많은 브로드웨이 배우들과 보로 스타들을 영화로 끌어들이면서 브로드웨이는 더욱 정체되기 시작했고 보드빌도 빠른 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재즈 싱어>를 끝내고 브로드웨이로 돌아오자던 앨 쥘슨이 할리우드에 곧바로 정착하게 되면서 앨 쥘슨의 유명한 레뷰(Review)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고 미국 뮤지컬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며 많은 극장을 소유했던 조지 M. 코헨의 극장들도 점차로 문을 닫게 되었다

다. 심지어 <지그펠드 폴리스(Ziegfeld Folies)> 시리즈와 최초의 북 뮤지컬(Book Musical) <쇼 보트(Show Boat)>를 제작하여 브로드웨이의 큰 손으로 자리 잡았던 플로렌스 지그펠드(Florenz Ziegfeld, 1869~1932)도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하게 될 만큼 전락했다. 안정된 제작자권을 마련하고자 주식에 투자한 전 재산이 주식시장의 붕괴로 인해 백지가 되어버리자 플로렌스 지그펠드 인생 만년은 처절한 비극으로 끝을 맺었다. 경제 대공황이 지속되며 브로드웨이의 극장 중 60퍼센트가 문을 닫았으며 조지 M. 코헨과 당시 미국에서 가장 많은 극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돈 슈버트(Shubert) 형제의 극장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심지어 어떤 공연장들은 발 빠르게 영화관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공연작품들도 대공황 이전에 제작된 공연작품수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숫자로 떨어졌다. 1930년대에는 능력 있는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전문가들이 밤길을 위해 할리우드로 발길을 돌렸고 브로드웨이는 거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했다.

이 되고, 1930년 한국독립당 창설에 참여하여 정치부위원 겸 군사부 참모장을 거쳐 총무위원장이 됐다. 1933년 중국군 상교참모로 활동하다가 이듬해 신한독립당을 창설하여 감찰위원장에 피선되어 활동하기도 했다. 1935년 상하이에서 일본영사관 소속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40년 가솔출했다.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됐다. 현재 출생지인 포천시 가산면 방

포천출신 독립운동가 이규채(李圭彩) 선생이 경기 북부 7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됐다. 이규채 선생은 포천시 가산면에서 출생했으며 3·1운동 당시 창신서화연구회를 창설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한 후 상하이로 망명, 1924년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

이 되고, 1930년 한국독립당 창설에 참여하여 정치부위원 겸 군사부 참모장을 거쳐 총무위원장이 됐다. 1933년 중국군 상교참모로 활동하다가 이듬해 신한독립당을 창설하여 감찰위원장에 피선되어 활동하기도 했다. 1935년 상하이에서 일본영사관 소속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40년 가솔출했다.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됐다. 현재 출생지인 포천시 가산면 방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한글 기초학습 교실 개강식

포천문화원 12월말까지 한글교실 운영



포천문화원(원장 이민구)은 6월21일 어려운 사정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한글교실을 수강생, 문화원 임원 등 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학교 2층 강의실에서 개강했다. 이민구 포천문화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움의 열의를 가지

시고 참여 해주신 수강생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포천문화원 한글교실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포천문화원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평생학습 차원에서 배움의 모자라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글 기초학습과 읽기, 쓰기 등 생활 한글을 습득토록 6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강의

를 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독립운동가 이규채(李圭彩)선생

경기북부 7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돼



이규채 선생은 포천시 가산면에서 출생했으며 3·1운동 당시 창신서화연구회를 창설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한 후 상하이로 망명, 1924년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

이 되고, 1930년 한국독립당 창설에 참여하여 정치부위원 겸 군사부 참모장을 거쳐 총무위원장이 됐다. 1933년 중국군 상교참모로 활동하다가 이듬해 신한독립당을 창설하여 감찰위원장에 피선되어 활동하기도 했다. 1935년 상하이에서 일본영사관 소속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40년 가솔출했다.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됐다. 현재 출생지인 포천시 가산면 방

축리에 행적비(行蹟碑)가 세워져 있다.

이달의 문화인물은 경기제2청에서 경기북부출신으로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여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경기북부 시군의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05)

「성황당」의 울음 소리

옛날 구름 성황당 근처에는 장난꾸러기 악동(惡童)이 살아서 마을 사람들의 웃음보를 터뜨리게 하곤 했다.

어느 해인가 흉년이 들었는데 유독 박생원 댁에만 곡식이 잘 되어 곡간에 가득 가득 차고 넘쳐나고 있었다. 다른 집은 추석이 되어도 흉년이 들어 겨우 조상님께 제를 올리는데에만 떡과 과일

시혜를 베풀게 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한다. 하루는 마침 장날이어서 박생원이 장거리에서 장구경을 온 종일 하고는 어두워서 야 귀가하게 되었다.

몸중 한방만을 데리고 장마당에서 돌아 오던 박생원이 구름성황당 장승 앞에 이르자 큰 번개가 일어나고 말았다.

“아이고 데이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흉년들어 죽다니... 굶어서 죽다니... 이런 억울할 때가 또 있었는가? 박 아무개네 집은 곡식과 과일이 넘쳐 난다니... 아이고 데이고 이럴 수가 있는가? 성주님도 무심하시고 옥황상제도 무심하시지... 어찌해서

박 아무개네만 풍년을 맞았을고? 얼얼하다 얼얼해... 아이고...!”

성황당 담장 안에서 송사시(처녀 죽은 귀신)와 풍지귀신(굶어 죽은 귀신)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뉘?! 박아무개...? 나를 일컫는 말 아니던가? 내만 풍년 호강을 하여 귀신을 까지도 원망을 하고 있더니... 내 잘못이 크나 크고 말고...’

이렇게 생각한 박생원은 몸중과 함께 신발을 벗어 들고 살금살금 고양이 발걸음을 걸으며 성황당 앞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다. 오일 장마당에서 마신 술이 확 깨고 온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긴급 가족회의를 하였다.

“우리 집만 풍작이고 다른 집은 흉작이어서 성황당 귀신들까지도 울고불고 아다이니 어찌 했으면 좋을까?”

박생원의 제안으로 가족들은 쌀과 곡식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기로 하였다. 그 후, 포천 보통학교 김모, 조모, 학동(學童)들은 물어고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울어서 고일리 부자를 감동시켰다는 이야기가 내 고향 포천의 전설로 전한다.

(그 후, 포천의 몇 안 되는 부자들은 흉년이 드는 해에는 성황당에서 귀신이 울어서 부자네 집을 해코지 할까봐 발발 떨며 적선을 하였다든 설도 전해 오지만 믿을 것이 못 된다.)

오히려 필자의 경험으로는 집주인 몰래 대문 안으로 쌀이나 떡을 밀어 넣어 음덕을 베푸는 것을 본 일이 생각한다. 그래서 내 고향 포천을 일반의 고장이라 하지 않았던가?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明盈情聲成(명영정성성)



崔宗圭 포천명유회 회장

梅花一樹照人明(매화일수조인명) 柳色新芽萬感盈(유색신아만감영)
매화나무 꽃 핀 기가지 사람 마음 밝게 비치고 버드나무에 새싹이 트니 춘정이 무르익네.

堞慾試飛無限興(첨욕시비무한흥) 鶯初學囀不勝情(앵초학전불승정)
내비가 처음 내래를 퍼니 감흥이 일어나고 꾀고리가 처음으로 지저귀니 정감이 넘쳐네.

池塘溢水清風意(지당일수청풍의) 山野田茸曉雨聲(산야전용효우성)
연못에 물이 넘치니 맑은 바람이 일어나고 산야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이른 아침 비소리 들려네.

松竹叢芳皆自樂(송죽군방개자락) 東君造化綠陰成(동군造化綠陰成)
송죽과 많은 꽃들은 스스로 즐기는데 봄은 자연 조화 속에 녹음이 짙어갈네.